

청춘·추억·사랑... 가시로 가득한 삶의 계절들

도예가 한갑수 '기억나무'
4월30일까지 갤러리바로
도예와 회화의 만남 주목
회화적 변곡점 처음 선보

그의 생은 수많은 가시로 가득하다. 가시 하나에 청춘, 가시 하나에 추억, 가시 하나에 사랑, 가시 하나에 쓸쓸함... 지난한 경험들이 모여 한 생을 이룬다. 그 생은 고독하지만 굳건하다. 도예가 한갑수의 '기억나무'다.

한갑수 작가의 기억나무 초대전이 갤러리바로(광주바로병원 4층)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열린다. 오는 18일에는 오픈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전시는 고슴도치 도예가로 알려진 한 작가가 변곡점 시작을 알리는 데뷔다. 동시에 조소 '고슴도치'의 은퇴식이기도 하다.

도예를 회화적으로 풀어낸 기억나무는 수많은 가시를 모아 군집을 이루는 한 작가의 독특한 예법의 결정체다. 한 작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픈 가시를 기억에 품고 살아간다. 그 기억들은

끓임없이 변형되고 각색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삶이 바로 기억나무다"며 "삶의 가시들이 군집을 이뤄 소박한 하루를 만드는 소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작가의 고집스러운 '가시 말기'는 삶의 몸부림이었다. 한 작가는 "어찌 보면 무식할 정도로 고독하게 가시를 말았다.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며 "가시 하나씩 말아 붙이면서 세상을 회상하고 되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유의 과정과 같다"고 말했다.

한 작가에게서 고집스러운 도예가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자기 반죽에 쓸 흙을 직접 캔다. 한 작가는 "흙은 인근 산에서 캐온다. 흙 반죽을 사서 사용하면 작품이 밋밋해진다"며 "또 유약을 바르지 않고 3박4일 동안 가마에 소성한 뒤 재를 날려 질감이 표현되도록 했다. 불이 그림을 그리는 무우소성 기법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외길만 걷는 도예가의 삶은 20대 시절 한 자기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시작됐다. 그 시작으로 한 작가의 삶은 바뀌었다. 도예를 넘어 인생의 스승을 만났고 목포대 조소과에 들어가 도예의 길을

걷게 됐다. 자신의 작가 정체성을 찾고 싶어 언젠가는 무안의 흙, 신안의 소금과 필만을 사용한 도예작품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슴도치 도예가로 유명한 한 작가의 회화적 변곡점을 처음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 작가는 "고슴도치만 만든 것이 한 15년 된다. 고슴도치를 만들어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고 그 역할을 다했다. 고슴도치는 이제 은퇴했다"며 "도예의 평면 작업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기억나무를 만들면서 예술적 영감이 깊어졌다. 이번 전시를 그 변곡점을 처음 선보이는 데뷔활동과 같다. 나에게 중요한 전시다"고 말했다.

한갑수 작가는 2010년 '고슴도치 갤러리 나들이 가다'전을 시작으로 △'미스타 두씨'전 △'고집소' 초대전 △'달아오름' 초대전 △'달산리 장승'전 등 총 8차례 개인전을 선

보였다. 또 △어머님전 살을빌어 △예술마당 '물아혜' 창립전 △'달이 빛은 도예'전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산문집 '떨어져 나간 것들의 생'을 출간한 바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한갑수 작 '기억나무' ▶

뮤지컬 '광주' 시즌4, 지역출신 배우 모집 광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 강좌 연다

광주문화재단, 19일까지 접수
5월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광주'에 출연할 광주 출신 배우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우 모집은 오디션을 통해 진행된다.

오디션 참가를 원하는 배우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 (주)라이브 홈페이지(http://livecorp.co.kr) MEDIA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9일까지 이메일(livelnc@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광주 거주자 또는 광주출생자, 광주 및 전남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로서 춤과 노래, 연기가 가능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 라이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오디션은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오는 27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연실에서

서 진행된다. 오디션 참여자들은 지정곡(님을 위한 행진곡 등), 지정연기, 자유안무를 소화해야 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은 '장삼년' 배역을 비롯해 남·여 '광주시민' 역할을 맡게 된다.

오디션 합격자는 공연의 연습 및 출연이 가능해야 하며, 타 공연 연습이나 공연의 동시 진행은 불가하다. 또 오는 4월 17일~5월 15일까지 서울 정동 경향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오디션 합격자에 한해 서울연습 숙식과 연습비, 공연 출연료를 포함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연은 오는 5월 16일~21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062-670-7495)에 문의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네 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광주'에 더 많은 지역 배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오디션을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무등·사직·산수 도서관서
3월부터 5월까지 23개 진행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무등·사직·산수 도서관에서 시민대상의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독서문화 강좌는 인문고전, 예술강좌, 외국어 회화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무등도서관은 성인 대상으로 △고전강독(시경) △고전강독(중용) △한자교실 △영어회화 △서예교실 △한국화교

실 △민화교실 △통기타여행 등 8개 강좌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생각놀이 △그림책 과학교실과 성인대상의 △한문교실 △위로와 마음챙김 독서테라피 △문화과 영화 △봄날 시 쓰기 △유지되는 신박한 정리수납 △독서미식회 등 8개 강좌를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성인대상의 △클래식인문학 △경제인문학 △고전독서 △보태니컬아트 △캘리그래피 △시 공감 낭송 △작품으로 만나는 미술사 등 7개 강좌를 마

련했다.

문의는 무등(062-613-7727), 사직(062-613-7772), 산수(062-613-7812).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7일부터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강좌신청' 또는 각 도서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 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강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민기자단'
15일까지 모집... 공연 관람 혜택

광주문화예술회관이 6일부터 15일까지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시민기자단은 회관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공연 정보 및 문화소식을 직접 취재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모집분야는 글·사진, 영상 2개 분야로 모집인원은 10명 이내다. 문화예술공연에 관심이 많고 멀티미디어 콘텐츠(홍보게시글,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소정의 원고료와 공연 관람 기회, 우수 기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와 제출과제를 첨부해 이메일(yml112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광주문화예술회관(062-613-8233).

도선인 기자

ACC, '틈' 주제 지역작가 공모전시

내달 6일까지 4000만원 지원
최대 3개팀 참여작가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역작가 공모전시에 참여할 호남지역 기반 창작자를 오는 3월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등 시각 예술 전 분야이며 '틈'을 주제로 ACC의 공간을 활용한 장소 특정적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 '틈'의 일차적 의미는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이나 '시간적인 여유, 겨를, 비교적 짧은 시간, 기회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광주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북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6일까지다.

ACC 홈페이지(http://www.acc.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yehiw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대 3인(팀)의 참여작가를 선정하고

3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작가(팀)에겐 총 4000만원의 작품 제작비와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제작된 작품은 ACC 예술극장 로비 내 계단 일원에 전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 참조.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전당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장소 특정적 전시 작품 공모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2022년에 공연한 뮤지컬 '광주'의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